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20대 대통령 선거: 평가와 과제
[발제자]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일 시] 2022년 3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89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의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은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었고 승리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51.6%로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했다. 그러나 정작 양당 후보 득표율이 48.6% : 47.8%로 0.73%차이로 24만 여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사회가 두동강 났음을 보여준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독점의 정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 정당집단주

의, 무책임 정당제라는 문제들을 노출했다. 현재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거나 서로 제갈 길을 가며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가 정치개혁을 이루어내기에 좋은 시기이다. 인수위원회는 정치개혁에 관련된 비전과 제도설계를 앞으로 두 달 간 신중하게 고민해야한다.

◆ 20대 대선의 특징

가. 초(超)접전

- ◆ 이번 선거는 보기 힘든 초접전이였다. 공식적으로 48.6%:47.8%로 0.73%차이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영호남에서는 거의 몰표가 나왔다. 많은 지역에서 접전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우리 기록으로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시기 1.53%, 39만표 차이가 역대 가장 작은 차이였는데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기록을 냈다.

나. 녹취록

- ◆ 이번 선거는 대장동 녹취록, 김건희 녹취록, 김혜경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까지 녹취록 폭로가 잇따랐다. 보기 드문 대선 후보의 배우자 사과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Alien vs Predator”, “썩은 사과 vs 덜익은 사과”의 싸움이라는 비유가 있었다. 출구조사를 보면 49%의 유권자들이 후보를 정말 좋아서 찍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른 쪽이 싫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후보를 찍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다. 단일화 경쟁과 여론조사의 홍수

- ◆ 민주당은 이재명과 김동연의 단일화가 있었고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있었다. 모두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양 후보에 지지율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분열, 갈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통합, 연대,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 여론조사가 너무 많았다. 19대 대선과 20대 대선을 비교하면 지난 대선 대비 여론조사가 185% 증가했다. 프랑스의 여론조사 회사는 10여개 남짓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회사가 90개에 육박한다. 여론조사가 국민을 더 헛갈리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틀렸고 실제 투표와도 괴리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발생했다.

◆ 국민 통합의 과제

- ◆ 권력심판의 주기가 짧아졌다.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나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까지 10년 주기였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시민들의 권력심판 주기가 상당히 빨라졌다.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명심해야할 부분이다.
- ◆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의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은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었고 승리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도 51.6%으로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했었다. 그러나 정작 양당 후보 득표율이 48.6%:47.8%로 0.73%차이로 24만 여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국 사회가 두동강 났음을 보여준다. 정권교체론이든 국정지지율이든 사회가 확연하게 갈라져있음을 확인했다. 이 부분이 이번 정권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 ◆ 이번 선거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 0선 전성시대였다. 국회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다. 반 정치였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신인이기에 역설적이지만 경험이 없는 것, 보여준 것이 없는 상황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 정치 개혁의 실종

- ◆ 정치개혁이 사라진 대선이었다. 특히 통합정부, 정치개혁, 연합정치는 야권에서 주장했어야 하나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 공약에도 고민의 흔적이 거의 없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주지 않았다. 정치개혁은 야당의 무기이다. 여당의 정권교체론에만 기대면 안 된다. 정권교체를 토대로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말했으면 더 좋은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 전세계적으로 정치개혁이 가능했던 계기는 두 가지다. 외부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정치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세 번째 경우가 생겼다. 윤석열의 정치개혁이다. 구체적이지 않을 때, 백지상태일 때 오히려 정치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 국민 대통합을 위한 과제

- ◆ 50%가 안되는 득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약 51%의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100% 독점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왔다. 그렇다보니 우리는 정치적 포용이 불가능한 독점의 정치, 배제의 정치가 되

었다. 사회적 갈등이 전혀 정치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많은 다수결 민주주의 나라가 있으나 우리나라가 최악의 현실을 보여준다. 권력을 100% 독점하면 안 된다. 이번 대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도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제와 같은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도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총리다. 차라리 첫 총리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독점의 정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 정당집단주의, 무책임 정당제라는 문제들을 노출했다. 현재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거나 서로 제갈 길을 가며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가 정치개혁을 이루어내기에 좋은 시기이다. 인수위원회는 정치개혁에 관련된 비전과 제도설계를 앞으로 두 달 간 신중하게 고민해야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